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 AI 가동의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중요도 급부상

### 클라우드스트라이크(CRWD.US): AI 가동의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중요도 급부상

- 시장에서 주목하는 CRWD 핵심 실적지표는 순신규 ARR. FY27년 1분기 순신규 ARR의 예상치 상회폭은 기대보다 크지 않았으나 FY27년 연간 가이드선 상향 조정 폭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것에 주목
- 1분기 순신규 ARR 2.6억 달러로 YoY 32% 성장하며 가이드선을 2.5%p 상회. FY27년 연간 순신규 ARR 전망치는 YoY 성장 기준 기존대비 5.2%p 상향 조정하여 27~29%로 제시. FY26년(+25%) 대비 가파른 가속화 전망에 대한 자신감 피력
- 핵심 요인은 1) 단일 제품이 아닌 복수 제품 채택 비중 증가, 2) 기존 고객 유지율이 높고 고객의 지출 확대 구조 유지, 그리고 가장 주목하는 점은 '미토스 모멘트'.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미토스 모델 공개를 계기로 AI 가동에 사이버보안 필요성 급부상. 고객사의 문의가 폭발적 증가하고 2분기 계약 파이프라인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AI가 사이버보안 사업자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와 달리, '미토스 모멘트' 이후 기업들의 인식은 AI 가동을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보안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점이 더욱 강화된 계기가 됨. 2월 후반부터 이러한 미토스 효과가 가속화되며 고객사의 수요 강세 뚜렷
- 1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는 기업의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중요 요인이 보안 강화이며 이러한 우호적 환경 속에서 통합 플랫폼 사업자로서 CRWD가 확실한 수혜자라는 점을 확인
- 실적 발표 전 1개월 동안 70% 넘는 주가 상승을 통해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되어, 실적 발표 후 주가 소폭 하락(-4%).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등 주가 변동성 있겠으나 1) 강력한 파이프라인에 따른 높은 실적 가시성, 2) 기업의 AI 도입 본격화 속에서 AI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예상되고 CRWD, PANW 같은 대표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향후 Beat & Raise 지속을 통해 업사이드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

### 팔로알토(PANW.US): 사이버보안 시장 높은 성장성과 점유율 상승에 주목

- 모든 실적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FY26년 연간 가이드선 모든 지표 상향 조정
- 1)AI 보안 수요 증대 속에서 대표 통합 플랫폼 사업자로서 수혜 확인, 2) AI 트래픽 폭증은 하드웨어 방화벽의 중요도 상승, 3) 사이버아크, 크로노스피어 등 인수 기업과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 확인
- AI 도입 가속화는 보안 수요를 견인하고 대표 통합 플랫폼 사업자인 PANW 수혜 뚜렷.
-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아이덴티티 보안 중요도가 가장 크고 모니터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ANW가 선제적으로 사이버아크(아이덴티티), 크로노스피어(모니터링) 등을 인수하여 통합 시너지가 향후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실적 발표 전까지 1개월 동안 주가가 70% 가까이 상승하며 기대감이 선반영. 실적 발표 후 주가는 7% 하락한 상황
- 주가 급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차익실현 영향 가능성 있으나 AI 보안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시장 내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도 높은 종목

## 브로드컴(AVGO.US): 2028년까지 성장 가시성 확대

- 실적 발표 전 브로드컴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이후 실적 기대감으로 이미 15% 이상 상승. 하지만 이번 분기 및 다음 분기 실적이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침. 특히 AI 반도체 매출과 향후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매도의 명분이 됨. 하반기 AI용 반도체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2배 증가하면서, 연간으로 56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제시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575억 달러 수준이었음. 다만, 1) 여전히 2027년 대비 2028년 추가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고, 2)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다시 빠진 수준에 불과하기에 추가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AI 반도체 수요 및 장기 가시성 확대

- 이번 분기 AI 반도체 신규 수주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실제 출하액 대비 수주 강도가 매우 높았음. 고객들이 2027~2028년 AI 컴퓨터 capacity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발주를 앞당겼기 때문
- 회사는 XPU와 AI 네트워킹 수요를 맞출 수 없다(insatiable)고 표현. FY26 AI 반도체 매출 가이드는 560억 달러, YoY 약 +180%이며, FY27 AI 반도체 매출은 1,000억 달러 초과 전망을 재확인
- 2027년 AI 칩 출하는 약 10GW 계획을 유지하되 하반기 집중도가 높을 전망. 이에 따라 2028년에는 2027년 대비 더 큰 GW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고객별로는 Google과 TPU 및 AI 네트워킹 장기 계약을 체결. Anthropic에는 2026년 1GW 이상 TPU 기반 컴퓨터를 제공하고, 2027년부터 추가 5GW의 차세대 TPU 기반 컴퓨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 OpenAI향은 2026년 말 생산 전환 목표이며, 2027년 1.3GW 배치 계약을 보유. 이는 2029년까지 10GW 규모 계약의 일부. Meta향은 2028년 말까지 3GW 배치 예정이며, 초기 1GW 주문은 2027년 하반기부터 출하 시작 예정

## AI/플랫폼

### 엔비디아(NVDA.US): RTX Spark로 AI 에이전트 PC 시장 개척

-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열린 Computex에서 1페타플롭 성능의 신규 PC용 CPU 'RTX Spark'를 공개하며 AI 에이전트 PC 시장 진입을 본격화

### 알파벳(GOOG.US): 850억 달러 유상 증자

- 알파벳은 구글 AI 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총 8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추진 중이며, 1차로 계획했던 400억 달러 발행이 초과청약되면서 450억 달러를 조달했고 버크셔해서웨이가 100억 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보임

### 아마존(AMZN.US): 검색창에 생성형 AI 이미지 도입

- 아마존은 모바일 앱 검색창에 생성형 AI 이미지 기능을 도입해 사용자가 원하는 의류·홈굿즈를 문장으로 설명하면 실제 판매 상품이 아닌 가상의 제품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선택하면 유사한 실제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 함

### 메타(META.US): Business Agent로 광고 의존도 완화 시동

- 메타는 WhatsApp, Messenger, Instagram에서 고객 문의 응대, 상품 추천, 예약 접수, 리드 선별(잠재고객 분류), 판매 전환까지 처리하는 Meta Business Agent를 글로벌로 확대하며 광고 중심 매출 구조를 기업용 AI 서비스로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본격화

### 엔트로픽(비상장): 비공개 S-1 제출

- 엔트로픽은 SEC에 S-1(미국 IPO 등록신고서)을 비공개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공식 착수했으나, 공모 주식 수와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IPO는 SEC 검토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

### 오픈AI(비상장): 플로리다, 오픈AI 샘 올트먼 제소

- 플로리다 주 검찰은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ChatGPT가 총기난사, 자살, 미성년자 중독 등 폭력·자해 사건과 연결됐다는 주장을 담은 첫 주정부 주도 소송을 제기. 소장 핵심은 오픈AI가 AI 군비경쟁과 수익화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내부·외부 안전 경고를 무시했고, 인간적 공감을 흉내 내는 챗봇을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대중과 미성년자에게 배포했다는 주장

## 우주/로봇

### 스페이스X(비상장): Morningstar, 적정가치 7,800억 달러 제시

- Morningstar는 SpaceX의 DCF(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 기준 적정가치를 7,800억 달러로 산정하며, IPO 목표

밸류에이션 1.75조 달러 대비 절반 이하라고 평가

**우버(UBER.US): 자율주행 자체 개발 대신 데이터 플랫폼화 가속**

- 우버는 올해 전 세계에 센서 장착 현대 아이오닉5 기반 데이터 수집 차량 500대를 투입해 Avride, Waymo, WeRide 등 30개 이상 자율주행 파트너에 고정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

## 클라우드스트라이크

<b>상장 국가</b>	<b>최근 주가 추이</b>
미국	<p>(USD)</p> <p>700 600 500 400 300 200 100 0</p> <p>25.6 25.8 25.10 25.12 26.2 26.4 26.6</p>
<b>산업</b>	
사이버보안	
<b>시가총액(십억달러)</b>	
173	

### 1QFY27 실적: AI 가동의 필수 요건으로서 보안 중요도 급부상

- 시장에서 주목하는 CRWD 핵심 실적지표는 순신규 ARR. FY27년 1분기 순신규 ARR의 예상치 상회폭은 기대보다 크지 않았으나 FY27년 연간 가이드نس 상향 조정 폭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것에 주목
- 1분기 순신규 ARR 2.6억 달러로 YoY 32% 성장하며 가이드نس를 2.5%p 상회. FY27년 연간 순신규 ARR 전망치는 YoY 성장 기준 기존대비 5.2%p 상향 조정하여 27~29%로 제시. FY26년(+25%) 대비 가파른 가속화 전망에 대한 자신감 피력
- 핵심 요인은 1) 단일 제품이 아닌 복수 제품 채택 비중 증가, 2) 기존 고객 유지율이 높고 고객의 지출 확대 구조 유지, 그리고 가장 주목하는 점은 '미토스 모멘트'. 앤스로픽의 클라우드 미토스 모델 공개를 계기로 AI 가동에 사이버보안 필요성 급부상. 고객사의 문의가 폭발적 증가하고 2분기 계약 파이프라인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AI가 사이버보안 사업자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와 달리, '미토스 모멘트' 이후 기업들의 인식은 AI 가동을 위해서는 먼저 사이버보안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구축해야한다는 점이 더욱 강화된 계기가 됨. 2월 후반부터 이러한 미토스 효과가 가속화되며 고객사의 수요 강세 뚜렷
- 1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는 기업의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중요 요인이 보안 강화이며 이러한 우호적 환경 속에서 통합 플랫폼 사업자로서 CRWD가 확실한 수혜자라는 점을 확인
- 실적 발표 전 1개월 동안 70% 넘는 주가 상승을 통해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되어, 실적 발표 후 주가 소폭 하락(-4%).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등 주가 변동성 있겠으나 1) 강력한 파이프라인에 따른 높은 실적 가시성, 2) 기업의 AI 도입 본격화 속에서 AI 보안 제품에 대한 수요 상승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CRWD, PANW 같은 대표 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향후 Beat & Raise 지속을 통해 업사이드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

### 주목하는 실적 지표 & 경영진 코멘트

- AI 보안 제품인 AIDR (AI Detection & Response) 부문이 QoQ +250% 성장, 2분기 파이프라인이 5천만 달러 돌파하며 빠른 초기 견인력 입증. CRWD는 AIDR이 장기적으로 EDR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주요 성장 동력 분야인 클라우드 보안, 아이덴티티 보안, SIEM 3개 부문의 합산 ARR 20억 달러 돌파. SIEM ARR은 6억 달러 초과하며 AI SOC 운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 강화
- Falcon Flex 고객 ARR 19억 달러, YoY +99% 성장. 재계약(re-Flex) 고객 수 480, 다회 재계약 고객 130개 이상으로 플랫폼 확장 모멘텀 지속 확인
- FCF 4.7억 달러로 FCF 마진 34% 달성. 'Rule of 40' 지표 59 기록, 4개 분기 연속 상승
- 미토스 모멘트는 단순한 AI 관심 증가가 아니라 실제 ARR 변곡점으로 작동하고 있음. 보안이 AI 인프라의 필수 구성요소로 인식되면서 기존에 없던 신규 수요 카테고리가 창출
- 2년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규모 토큰 예산이 기업 내에 새롭게 생성. 이는 기존 IT 예산이나 보안 예산과는 별개의 새로운 지출 카테고리로 형성. 고객들이 토큰 지출을 추적하는 방식도 '충분히 빠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더 빨리 가야하는가' 수준으로 변경. AI 도입을 비용이 아닌 전략적 속도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
- 'AI를 만들려면 GPU가 필요하고 AI를 사용하려면 보안이 필요하다' 인식이 부각. AI 투자 확대와 보안 지출 확대를 동시에 견인하는 매커니즘

## 팔로알토

##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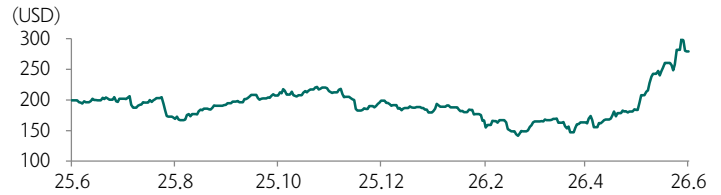
## 산업

사이버보안

## 시가총액(십억달러)

228

## 최근 주가 추이



## FY26년 3분기 실적 발표: 사이버보안 시장 높은 성장성과 점유율 상승에 주목

- 모든 실적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FY26년 연간 가이드런스 모든 지표 상향 조정
- 1) AI 보안 수요 증대 속에서 대표 통합 플랫폼 사업자로서 수혜 확인, 2) AI 트래픽 폭증은 하드웨어 방화벽의 중요도 상승, 3) 사이버아크, 크로노스피어 등 인수 기업과의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 확인
- AI 도입 가속화는 보안 수요를 견인하고 대표 통합 플랫폼 사업자인 PANW 수혜 뚜렷.
-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아이덴티티 보안 중요도가 가장 크고 모니터링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ANW가 선제적으로 사이버아크(아이덴티티), 크로노스피어(모니터링) 등을 인수하여 통합 시너지가 향후 본격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실적 발표 전까지 1개월 동안 주가가 70% 가까이 상승하며 기대감이 선반영. 실적 발표 후 주가는 7% 하락한 상황
- 주가 급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차익실현 영향 가능성 있으나 AI 보안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시장 내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도 높은 종목

## 주요 지표 &amp; 주목할 코멘트

- 매출액 30억 달러, YoY +31%, 달성하며 시장 컨센을 2% 상회
- 차세대보안(NGS) ARR 81.3억 달러로 60% 증가, 인수효과 제외하면 65억 달러로 YoY 28% 증가
- 조정 OPM 21.3%로 전년동기 수준
- 순신규 플랫폼화 110건으로 총 플랫폼화 고객사 2,280개 달성, 플랫폼화 고객사의 NRR은 120%
- 네트워크 보안은 수년내 가장 강한 3분기 실적 달성. 하드웨어 방화벽 계약 +40% YoY 증가로 10년내 최강 분기
- SASE ARR은 16억 달러로 40% 증가, SASE 시장 성장률의 2배 이상
- AI 보안 제품인 Prisma AIRS 고객수 3분기에 300으로 전분기대비 3배 확대. 수 분기내 ARR 1억 달러 달성 가시성 확보
- 보안 운영 플랫폼 XSIAM ARR은 6억 달러로 YoY 100% 증가
- 인수한 크로노스피어(모니터링 사업자)는 인수 발표 이후 ARRI가 거의 2배 확대되어 3억 달러 돌파
- 사이버아크(아이덴티티 보안)는 인수 후 첫 분기로 내부 목표 초과 달성. 수익성 통합 일정은 당초 계획대비 3~6개월 앞당겨 진행
- 사이버아크와 팔로알토의 사업부간 영업미팅이 1천건 이상 착수, 통합 효과 본격화 기대
- AI는 사이버보안의 구조적 수요 촉매. 트래픽 폭증은 실시간 네트워크 보안 수요 급증 요인. AI 머신 위협 증가는 XSIAM 기반 자동화 방어 필요성 증대. 에이전트 ID 폭발적 증가는 아이덴티티 보안 수요 증대 요인
- AI 위협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통합 보안 플랫폼의 강점이 더욱 부각. 단독 AI 모델은 25% 오탐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요한 환경에서 단독으로 기능 불가. 단일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스케일과 함께 인텔리전스가 강화되는 구조만이 AI 시대 보안 문제 해결할 수 있음
- 하드웨어 방화벽 부활 선언. 방화벽은 죽지 않았음. AI 에이전트의 머신 간의 트래픽 급증은 고처리량의 하드웨어 수요 구조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아이덴티티 보안의 대표 사업자인 사이버아크 인수 후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첫 대형 M&A 성공 증명

## 브로드컴

###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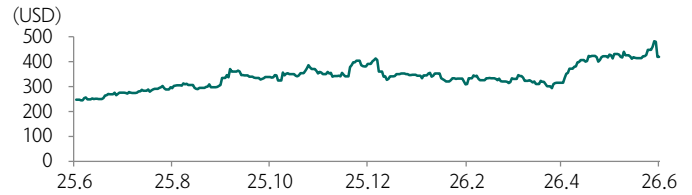
### 산업

반도체

### 시가총액(십억달러)

1,983

### 최근 주가 추이



### 브로드컴(AVGO.US): 2028년까지 성장 가시성 확대

- 실적 발표 전 브로드컴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이후 실적 기대감으로 이미 15% 이상 상승. 하지만 이번 분기 및 다음 분기 실적이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침. 특히 AI 반도체 매출과 향후 전망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며 매도의 명분이 됨. 하반기 AI용 반도체 매출액이 상반기 대비 2배 증가하면서, 연간으로 56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제시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575억 달러 수준이었음. 다만, 1) 여전히 2027년 대비 2028년 추가 성장 가능성을 내비쳤고, 2)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다시 빠진 수준에 불과하기에 추가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지표

- FY2Q26 매출 222억 달러 (예상치 221.3억 달러), YoY +48%. 조정 EPS 2.44달러 (예상치 2.39달러)로 예상치 소폭 상회
- GPM 77.1% (전년 79.4%), YoY -230bp. 반도체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영향이나, 영업 레버리지로 OPM은 67.3%를 기록하며 YoY +200bp 개선
- Semiconductor Solutions 매출 150억 달러 (예상치 146.5억 달러), YoY +79%. 이 중 AI 반도체 매출 108억 달러 (회사 전방 107억 달러), YoY +143%
- Infrastructure Software 매출 72억 달러, YoY +9%
- FY3Q26 매출 가이던스 294억 달러 (예상치 285.4억 달러), YoY +84%로 컨센서스 상회. 다만 FY3Q26 AI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 160억 달러 (예상치 163.6억 달러)로 AI 칩 매출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 GPM은 약 74%으로 하락 전망. 다만 OPM은 67%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제시

### AI 반도체 수요 및 장기 가시성 확대

- 이번 분기 AI 반도체 신규 수주는 300억 달러 이상으로, 실제 출하액 대비 수주 강도가 매우 높았음. 고객들이 2027~2028년 AI 컴퓨터 capacity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발주를 앞당겼기 때문
- 회사는 XPU와 AI 네트워킹 수요를 맞출 수 없다(insatiable)고 표현. FY26 AI 반도체 매출 가이던스는 560억 달러, YoY 약 +180%이며, FY27 AI 반도체 매출은 1,000억 달러 초과 전망을 재확인
- 2027년 AI 칩 출하는 약 10GW 계획을 유지하되 하반기 집중도가 높을 전망. 이에 따라 2028년에는 2027년 대비 더 큰 GW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고객별로는 Google과 TPU 및 AI 네트워킹 장기 계약을 체결. Anthropic에는 2026년 1GW 이상 TPU 기반 컴퓨터를 제공하고, 2027년부터 추가 5GW의 차세대 TPU 기반 컴퓨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 OpenAI향은 2026년 말 생산 전환 목표이며, 2027년 1.3GW 배치 계약을 보유. 이는 2029년까지 10GW 규모 계약의 일부. Meta향은 2028년 말까지 3GW 배치 예정이며, 초기 1GW 주문은 2027년 하반기부터 출하 시작 예정

### 네트워킹 동반 성장

- 2분기 AI 매출 중 네트워킹 비중은 약 40%. 회사는 이 수준이 높은 편이며, 장기적으로는 AI 매출 내 네트워킹 비중이 약 3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음
- XPU 채택 확대는 스위치, PCIe, 커넥터, DSP, 레이저, NIC, 라우터 등 네트워킹 칩 수요를 동반 확대시키는 구조. 회사는 랙 판매가 아니라 XPU와 네트워킹 칩을 함께 공급하는 칩 중심 모델이라고 강조
- 마진 측면에서는 TPU/ASIC 및 일부 무선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이어서 AI 반도체 비중 확대 시 GPM에는 부담. 반면 AI 네트워킹은 고마진이어서 일부 상쇄 효과가 있음

##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RTX Spark로 AI 에이전트 PC 시장 개척**

- 엔비디아는 대만에서 열린 Computex에서 1페타플롭 성능의 신규 PC용 CPU 'RTX Spark'를 공개하며 AI 에이전트 PC 시장 진입을 본격화
- 해당 칩은 OpenClaw, Hermes Agent 같은 AI 에이전트를 로컬 PC에서 안전하게 실행하기 위한 보안 샌드박스(격리 실행 환경), 충분한 CPU-GPU-RAM, CUDA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하는 구조
- ASUS, Dell, HP, Lenovo, Microsoft Surface, MSI가 올가을 RTX Spark 기반 Windows PC를 출시하고 Acer, Gigabyte도 후속 참여 예정

**알파벳(GOOG.L.US): 850억 달러 유상 증가**

- 알파벳은 구글 AI 사업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총 8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추진 중이며, 1차로 계획했던 400억 달러 발행이 초과 청약되면서 450억 달러를 조달했고 버크셔해서웨어도 100억 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보임
- 조달 자금은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중심의 다년 투자에 투입될 예정이며, CEO 손다르 피차이는 올해 말까지 CAPEX(설비투자)를 1,800억~1,900억 달러 집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아마존(AMZN.US): 검색창에 생성형 AI 이미지 도입**

- 아마존은 모바일 앱 검색창에 생성형 AI 이미지 기능을 도입해 사용자가 원하는 의류-홈굿즈를 문장으로 설명하면 실제 판매 상품이 아닌 가상의 제품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선택하면 유사한 실제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 함
- 예를 들어 "cowl neck(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진 칼라)" 같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draped collar shirt(늘어진 칼라 셔츠)"처럼 묘사하면 검색 의도를 시각화해주는 방식

**메타(META.US): Business Agent로 광고 의존도 완화 시동**

- 메타는 WhatsApp, Messenger, Instagram에서 고객 문의 응대, 상품 추천, 예약 접수, 리드 선별(잠재고객 분류), 판매 전환까지 처리하는 Meta Business Agent를 글로벌로 확대하며 광고 중심 매출 구조를 기업용 AI 서비스로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본격화
- 이미 100만 개 이상 기업이 WhatsApp-Messenger에서 Business Agent를 사용 중이고, WhatsApp-Messenger-Instagram 내 기업 대화 스레드가 하루 10억 건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메신저 트래픽을 CRM(고객관계관리)-커머스 자동화 매출로 전환하려는 시도
- 나아가 메타는 내년 테스트를 목표로 AI 펜던트(목걸이형 웨어러블)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2025년 말 인수한 Limitless의 대화 기록형 AI 웨어러블 기술을 기반으로 AI 안경을 넘어 상시 착용형 기기 라인업을 확장하려는 시도

**엔트로픽(비상장): 비공개 S-1 제출**

- 엔트로픽은 SEC에 S-1(미국 IPO 등록신고서)을 비공개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공식 착수했으나, 공모 주식 수와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IPO는 SEC 검토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
- 이번 제출은 5월 말 650억 달러 규모 Series H 조달과 9,650억 달러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 직후 이뤄진 것
- 또한 엔트로픽은 코드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고성능 AI 모델 Claude Mythos Preview에 대해 EU 집행위 및 EU 사이버보안청 ENISA와 접근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오픈AI(비상장): 플로리다, 오픈AI·샘 올트먼 제소**

- 플로리다 주 검찰은 오픈AI와 샘 올트먼을 상대로 ChatGPT가 총기난사, 자살, 미성년자 중독 등 폭력·자해 사건과 연결됐다는 주장을 담은 첫 주정부 주도 소송을 제기. 소장 핵심은 오픈AI가 AI 군비경쟁과 수익화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내부·외부 안전 경고를 무시했고, 인간적 공감을 흉내 내는 챗봇을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대중과 미성년자에게 배포했다는 주장

## 우주/로봇

## 스페이스X(비상장): Morningstar 적정가치 7,800억 달러 제시

- Morningstar는 SpaceX의 DCF(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 기준 적정가치를 7,800억 달러로 산정하며, IPO 목표 밸류에이션 1.75조 달러 대비 절반 이하라고 평가
- SpaceX는 주당 135달러, 약 750억 달러 조달, 1.75조 달러 가치, 6월 12일 Nasdaq 상장을 추진 중인데, Morningstar는 Starlink가 중기 핵심 이익원인 점은 인정하나 orbital data center(우주 데이터센터)와 xAI/Grok의 경제성·기술 검증이 불확실하고 경쟁력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봄
- 단기적으로는 낮은 유통물량, 머스크 프리미엄, 대형 IB 주관, Nasdaq-100 편입 기대가 주가를 띄울 수 있지만, 락업 해제 후 사모투자자·임직원 보유 지분이 시장에 풀리면 매물 부담이 생길 수 있음

## 우버(UBER.US): 자율주행 자체 개발 대신 데이터 플랫폼화 가속

- 우버는 올해 전 세계에 센서 장착 현대 아이오닉5 기반 데이터 수집 차량 500대를 투입해 Avride, Waymo, WeRide 등 30개 이상 자율주행 파트너에 고정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
- 해당 차량은 카메라, 고정형 라이다(레이저로 거리·형상을 인식하는 센서), 레이더를 탑재하고 엔비디아 Dual Drive Thor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이며, 월 200만 마일 규모의 로보택시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5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연)는 2026년 6월 5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